

청원서 플라스틱 공장 화재

청원에서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.

12월18일 오후 10시3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.

소방당국은 화학차 1대와 소방차 13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공장 내부에 인화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불이 날 당시 공장에는 직원들이 있었으나 화재가 난 뒤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20>